

아동 : 양성 평등한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정 대 련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여는 말

정신분석가이며 기호학자인 J. 크리스테바는 “인간의 성은 심리적으로 양성성을 띠고 있다” 고 말한다(www.daughterlove.org). 진보적 사회학자들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융통성 있게 발현되는 ‘양성적’ 인간을 21세기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제시해왔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 해방 및 여성해방운동 등의 영향으로, 전통 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또는 성역할 규범이 점차 약화되면서 양성성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독립성, 합리성 등은 남성의 전형적 덕목으로, 감정 이입, 부드러움, 보살핌 등은 여성적 덕목으로 구분하던 시절을 지나, 남녀 공히 인간의 바람직한 기본 덕목으로서 이러한 양성적 덕목과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사실,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서로 보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의 동시 성취가 불가능한 만큼, 양성성 개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김미혜, 1985 ; 한국여성연구소,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성은 오늘날 양성평등, 여성해방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이다. UN은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로 제정하여, 평등한 동반적 가족을 구현하려는 인식을 재고하였다. 동반자적 가족은 ‘협동적 구조, 평등한 권리와 권력의 사용, 성역할 개념의 융통성, 함께 하는 가족활동, 가사 일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양육의 공동 책임,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한다. 2003년 출범한 새 정부(www.provin.gyeongnam.kr)도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성 차별 해소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은 부모-자녀관계로 형성되는 “가정”에서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이다. 195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인권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에는 아동이 건전하게 생육하기 위

하여 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애정과 사회의 이해 속에 길러져야 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며, 학살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57년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상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사회 시민으로 구체화하고, 그 첫째 항목에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1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아빠는 2일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 쉰다. 내가 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어른보다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남기고 목을 매어 숨졌다(한겨레신문, 2002.11.8).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기가 죽어 집에 돌아온 아동을 적게는 3군데, 많게는 8군데의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동은 숙제하기, 예습하기, 복습하기, 일기쓰기를 종용받으며 자정을 넘기며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아동 점수가 부모 점수여서 백점이 아니면 부모는 창피해서 밖에 못나간다며 화를 내고, 이웃 아동과 비교하며, 중국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고 자녀를 쥐어박으며 책임을 추궁한다(한겨레신문, 2002.11.17).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 속에 자라며,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린이헌장의 의미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아동은 아직까지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성역할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은 각자 타고난 성향과는 상관없이, 남자니까 옷은 남색계열로 입고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자니까 분홍색 계열의 예쁜 옷을 입으며 다소곳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어른의 주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실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주어진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정란, 2000).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욕구나 성향이 사회적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동은 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는 말이다(Creany, 1995). 성인들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어떻게 수용하게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정순화, 1992 ; Alexander & Hines, 1994 ; Fagot & Leinbach, 1989).

이에 발표자는 양성 평등한 가정 내 아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아동의 문제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정 내 아동의 위상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유아용 그림책과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동의 양성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교재로서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발표자의 구체적 목적이다.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책을 사회화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림책은 어린 유아에게 사회적인 가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Zeece, 2001).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라면 누구든

의무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핵심 교육 자료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그림책과 교과서의 성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양성평등 지수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미래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가능성을 가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정생활과 아동

가정은 아동이 의식주를 비롯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해결하는 곳이다. 학교나 사회에 비해, 가정은 어린 아동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아동에게 있어 가정환경은 우선 집 즉 주거의 장소를 의미한다. Rand(임미숙, 1992, 재인용)에 따르면, 아동의 주거에 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5-6세 아동에게 집이란 가족의 의례적인 활동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정을 나누는 목적이나 사건의 연결장소이다. 부모의 방과 자신의 방이라는 대상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의 분할이 이해되며, 이 연령의 아동에게 집 개념은 확실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적으로 형태가 없는 창고와 같은 곳이다. 8-9세 아동은 가족들의 행동에 의해서 집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기의 부모가 사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부모와 가족의 대인행동을 통해 가정과 이웃의 사회적인 질서를 조금씩 알게 된다. 10-12세 아동은 가정의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규칙에 완전히 동화된다. 또 이 시기 아동은 자기 방을 장식하려고 하며, 가정의 사회적인 질서와 사회적 규약에 대한 이론적·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아동의 주거환경으로서의 주택은 아동의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관련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임미숙(1992)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의 주생활 행위는 식사행위, 가족 단란행위, 학습/취침행위, 휴식행위, 놀이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아동은 단독주택의 안방(개실)과 아파트의 거실(공동생활공간)을 주로 이용하며, 이는 TV 시청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아동은 단독주택의 안방을 중심공간 및 부모의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동물사육 가능성에서 그 특성을 찾으며, 아파트의 거실은 중심공간 및 가족생활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생활의 편리성에서 그 특성을 찾는다. 아동의 방은 학습·취침 공간으로서 놀이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며, 아동의 주거만족도는 방 크기와 프라이버시 보장과 관련된 방 공유의 문제에 의존한다.

아동은 인생에 있어서 신체의 성장 발육단계로서, 심신의 발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고 바른 영양섭취를 해야 한다. 아동이 어떤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즉 아동의 건강 발달과 자율성, 특히 음식에의 기호와 식습관과 관련된 식생활 환경(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기의 식습관은 가정의 경제, 부

모의 식습관 및 사회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바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식습관 형성은 가정의 아침저녁 식사의 규칙성과 내용, 간식, 음식선택,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 등과 연관되어 있다(이방자, 2000). 남아가 여아보다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취업모의 경우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비율이 높다. 생활정도가 중 이상인 가정에서 아침식사로 대체식보다 밥을 많이 먹으며, 형제 수가 많거나 전업주부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보다 규칙적으로 한다. 간식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하며, 여아는 우유·빵 그리고 남아는 라면·튀김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 특히 요즘 아동은 전통음식보다 아이스크림, 돈가스, 햄버거, 피자, 핫도그 등 외래음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

아동으로 하여금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주며, 균형 잡힌 성격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소의 하나가 의복이다(문영애, 1991). 학령기 아동은 활동하기 편한 의복을 좋아하며 유행하는 디자인을 좋아하고 남녀 모두 밝고 화려한 색을 좋아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의복의 관리성과 자립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의복의 동조성이 높다. 아동이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 스스로 의복을 착용하게 하면 독립성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으나, 너무 이르면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의복은 또한 성역할의 차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이명희, 1987).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복의 색상으로 남녀를 구별하여, 여아에게는 붉은 색 남아에게는 푸른색 계통을 주로 입히며, 바지를 남성, 치마를 여성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의복은 사회적 관례에 입각해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익히는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전경란, 1997), 아동기에는 성역할에 따른 의복 착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성역할태도는 아동의 의복 성역할과 상관된다. 자녀양육 시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의 성역할과 남아복에 뚜렷한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의 의복 성역할이 전통적일수록, 남아와 여아는 각각의 성별에 따른 스타일을 선호한다. 여아의 복장에 대해 남아는 전통적인 것을 그리고 여아는 개방적인 것을 원하며, 이성(異性)형제가 있는 아동이 좀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의 차이가 약화되어 남녀간 의복의 차이도 줄어들어, 여성의 바지 착용이 증가하고, 티셔츠, 스웨터, 잠바 등에서 유니섹스 의복스타일이 정착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와 다양하고 기능적인 활동복에 대한 추구가 남녀 상호간의 의복에서 장점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남녀 의복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가정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서 부모환경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깊은 의미를 가진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되어,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공동으로 나누어 맡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로서, 자녀양육을 공유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의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경제적 제공 및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적인 역할 수행 뿐 아니라, 자녀에게 도덕성 및 가치관을 전달하고, 또한 자녀의 동료로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는 양육적이고 표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찾아진다.

전통적으로 좋은 아버지란 아동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일하며,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항상 옳고 강하며, 순종적인 자녀를 위해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진보적이고 양성적인 아버지는 자율적인 아동의 행동을 강조하고, 아동과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성숙된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오늘날 양성적 부모(공인숙, 최연실, 1995)는 아동에 대해 반응성이 높고, 요구는 낮다. 양성적 부모는 아동 중심적 양육태도를 가지므로써, 양성적인 어머니는 덜 양육적이며, 양성적인 아버지는 덜 엄격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반면 온정적 또는 남성적인 아버지는 오히려 여성적이거나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아버지보다 자존감이 높다. 따라서 양성성이 모든 부모에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Canfield(김은경, 2000, 재인용)는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0-2세 영아기에 아버지는 아기 양육과 부양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기의 예기치 않은 반응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자유시간, 그리고 수면 문제 등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 시기의 아버지는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여, 영아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2-7세 유아기는 아버지가 아동에 대한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시기로서, 이를 Oedipus Complex 에 대한 Laius Complex 라고 한다. 이 시기 아버지는 유아 및 자신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며, 즉 직업의 선택이나 가족의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하며,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놀이친구가 되어야 한다. 7-12세 아동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아버지는 아동을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역할과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 및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에게 중요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수행, 훈육, 사회성 발달 및 지적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동심과 능동적인 태도형성을 위해 지도하고, 성역할 발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며, 친구관계·저축 및 금전 사용 방법을 지도하고, 자녀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해야 하며, 자녀의 논리와 추론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훈육 기술을 배우는 등 아버지 자신도 발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3. 양성평등 가정과 아동

양성 평등한 가정 내 아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아동 즉 자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다(인터뷰 대상자 참고 문헌에 제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가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보물처럼 아주 귀중한 존재이며, 그들이 있어 고생스럽지만 한편으론 든든하고, 부모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살도록 감시하는 자이며, 부모 즉 어머니의 사는 보람이며 삶의 의미 그 자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례1: 아이들이 있으면 든든하기는 해요. 그래도 기르는데 힘든 것 생각하면 부모가 고생이죠.”

사례3: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동은) 우리가 사는 보람이며 삶의 의미는 바로 아이들이다.”

사례4: “부모란 아동에게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므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동은) 부모의 감시자이자 부모를 정신차리게 하는 존재다.”

사례5: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동은)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이다.”

사례7: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동은) 보물이다.”

사례8: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동은) 아주 귀중한 존재이다.”

위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 가정의 아동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인식을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차 논구함이 오히려 진부하게 여겨진다.

원래 양성성(androgyny)이란 그리스어 andros (남성)과 gyne (여성)을 결합한 용어로서, 남성적이라 불리는 특성들과 여성적이라 불리는 특성들을 한 개인이 함께 지니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넓은 의미로 양성성 개념은 성의 구분이 없는 상태, 즉 유니섹스 옷차림, 양성애(bisexuality), 자웅동체성(hermaphroditism) 등까지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에 한정하여 사용된다(고미라, 127). 양성성은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하여, 이 둘을 결합시키면서도 동시에 이 개념들의 본질적 측면을 거부하기도 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내용에는 ‘품성’과 ‘성격’이 혼합되어, 즉 인간의 바람직한 인격적·도덕적 특성과 도덕적 원칙들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실제 여성들의 경험을 읽어내는 방식에 있어 여성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치화한다. 양성성에서 전제하는 여성성을 여성에 대한 관념으로서 현실 여성과 무관하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여성성 즉 현실의 여성들이 실제로 갖는 경험 자체를 부각시킨다(womanhood, motherhood). 여성적 경험에는 모성적 경험, 가정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의 경험, 생물학적 경험, 성적인 경험, 성장과정에서의 심리적 경험, 피지배자 및 타자로서의 억압의 경험 등이 포함된다.

결국 양성성이나 여성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모두 기존의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체계가 여성적인 것을 비하하고, 여성을 그 속에 묶어두려 한다는 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간의 성 차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보다 본질적 요소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인간 평등의 의미에서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란 단지 우연적인 차이로 해석된다. 일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간 이해의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각각의 성은 서로 다르지만 어떤 측면 예를 들어 인간 사회의 유지 발전이라는 목적 등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으로 양성평등이 이해되기도 한다(김태현, 2002).

어머니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볼 때, 성 고정관념과 성 평등적 사고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남녀 아동의 본성적 차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으나, 현대의 평등사회로의 지향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용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다.

사례1: “기본적으로는 남여가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는 일이 다르니 배우는 것은 달라야 한다고 봐요.”

사례4 “부모의 인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남아 여아가 조금은 다르게 논다.”

사례5 “과연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질이 있다고 하여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양성평등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

사례6: “(5세 딸이) 애교로 아빠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여자 아이이므로, 치마 입힐 때 속옷 등에 신경을 쓰게 되며,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례7. “요즘에는 오히려 딸들이 가사 일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데, 아들과 딸 모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8: “대개는 성별에 따라 아들과 딸의 취향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전교회장이나 학급회장에 여학생 수가 늘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대등하게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학생시절과 비교한다면 비교적 양성평등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사례9: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줄 세우고 그러는 걸 본다. 또 집에서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

사례10: “여자아이(딸)는 인형 종류를, 남자아이(아들)는 로봇이나 공룡을 선택하였다.” “교과서 내용, 학급회장 선거 등의 외적인 요소에는 양성평등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나 은연중에 작용하는 내적인 요소, 즉, 교사나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 아동의 의식 등은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한편 오늘날 아동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을 고려한 교육의 측면에서는 성중립적 교육(조경원, 1999)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성중립적 교육'이라 함은 우선 가장 강한 의미로 볼 때, 교육영역

내에 생기는 성별 차이를 제거하여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반면 약한 의미에서 성중립적 교육이란 성(gender)을 무시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남녀 양성에게 동등하게 가정과 기술, 체육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성중립적 교육은 성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성을 고려하는, 성에 민감한(gender-sensitive)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나 성 중립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의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 같은 성중립적인 접근에서 지지되는 남녀평등의 이상은 성을 마치 우리 눈의 색깔처럼 취급하여 사회조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녀 관계를 구성하는 힘의 구조과정으로서의 성(gender)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말이다(Houston, 1985). 우리 사회와 교육에서 ‘평등’과 ‘공정함’은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Nadeem, 2001). 반면 여성의 경험 세계로부터 형성된 돌봄과 책임의 도덕성 등은, 개인간의 권리에 관계되는 정의의 도덕성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인간 세계의 바람직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이론에서 학문의 주류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Gilligan, 1982).

90년대 들어 아동의 정규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기대 수준은 딸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를 계속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교육목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주은희, 2002). 자신의 딸이 마음껏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사회의 중심은 남성에 있다는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 양육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를 키울 때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스트레스 유형의 차이일 뿐 모두 ‘남아를 잘 키우면 여아보다 더 보람되다’는 남아 선호 사상에 기인한 결과이다.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양성평등한 미래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 스스로 양성평등과 양성차이의 의미를 구별하고, 남편과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 하고, 공부는 물론 가정 사에도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참여하는 가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아동(자녀)들이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건강하고 옹고 그름을 판단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성 차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그들은 남편과 함께 양성평등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하기도 한다.

사례1: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겠네요. 먹고사는 일이 바빠서요.” “평등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하는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보수적이라 아들네 가서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표현은 못하지만요. 앞으로 젊은이들은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사례3. “의식주 모든 문제를 남녀가 같이 해결해야한다. 옛날 부모들의 고정관념으로 남의 이목을 생각

하니까 아직도 양성평등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부모부터 같이 나누어서 일하고 책임
져야 한다.”

사례4 “양성의 차별은 용납하지 않지만, 양성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 양성평등과 양성차이를 스스
로 인정하며 주위 사람들을 계몽해 나가도록 가르친다. ... 미래 양성평등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해, 가정 또는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는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가
양성평등과 양성차이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사례5 “남자 아이는 강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 여자 일을 할 줄 알면 좋고, 여자도 능력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6 “양성 평등한 가정 또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딸아이가 건강하고 옹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반
듯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사례7 “남녀 아동으로 하여금 미래 양성평등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해, 요즘 가정에서는 오히
려 딸이 가사 일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데 아들과 딸 모두 같이 해야 한다.”

사례8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솔선수범하고 남녀의 성차를 보려
하지 말고 개인차를 고려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9 “신문에서 성희롱, 성추행, 또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을 읽으면 분노하게 된다. 내 아들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남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사례10.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사가 여자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점점 더 많은 영역을 가족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아내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공부 이외에 가
정사에도 참여하여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같이 이루어 가는 가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
만,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좋은 모델을 현재의 부모가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녀에게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준비시켜 나가는 동시에 남편과 내가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려
노력해야 겠다.”

근간에 들어 남자만의 영역에 여자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여자만의 영역에 남자가 진출해서
성공하기도 한다. 21세기 인간형은 더 이상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다. 양성적으로
평등한 인간형이야말로 21세기형 인간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성취해야
할 표본이다.

4. 그림책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동과 양성평등

그림책이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들은 짧은 이야기이지만 어린 시기 아동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동화는 아동이 긍정적인 인간상을 형성하고, 가족 효도 우애 정의 정직 성실 책임 근면 지혜로움 보은 동물사랑 자아각성 용기 사랑 자립 등의 가치를 기초로 하여, 아동의 도덕적 의지 또는 도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화는 유머러스한 주제를 포함하여, 예술·문학적 감동과 재미 속에 삶의 기쁨과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해주며, 정서적 안정감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유아들의 긴장극복 능력을 길러준다.

발표자는 1999년 3월에서 2000년 2월까지 서울 및 과천 지역 8개 유치원에서 1년 동안 활용하였던 유아도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박혜경, 정대련, 2000). 도서에 나타난 등장인물 중 인간이 주인공인 경우의 남녀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31.4%로서,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와 남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합쳐도(26.9%) 남성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화와 외국동화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인공의 남녀 성별 비율이 동등하였으나, 외국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이 나타난다. 직업에 있어서도 여성은 주부와 공주, 왕비에 국한되어 있고, 남성은 과학자, 의사, 왕, 와자, 우체부, 나무꾼, 공원지기, 장사꾼, 산타, 어부, 농부 등 다양한 직업을 보여준다. 유아도서에 나타나는 남녀 성차에 대한 개념이 성 고정관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유아용 그림책 74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대련, 정연경, 2001)에서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성차별적 흔적이 발견되고, 특히 성인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실태는 심각한 정도이며; 양성평등을 표방한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불평등의 장면도 포착된다.

여아가 받는 보상이나 평가의 기준을 볼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 내적 깨달음을 통한 성장,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포함하여 기술이나 경쟁을 통한 보상이 나타나는 도서가 16%에 머무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도서가 성전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아의 성취에 있어서도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는 수동성에 의해 상황을 수용하는 여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표상하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남녀 성별에 고착된 전형적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상에 있어서 능동적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도서가 수동적 여성상에 비해 2배에 이르러 전형적 여성상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등장하는 남녀 인물의 정서가 보다 양성애에 가깝고, 여아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역할에서는 97%가 집안의 어머니 모습만을 그리고 있으며, 어머니의 다른 직업이 명시된 경우, 간호사·유치원교사·기상캐스터 등이 전형적 또는 보조적 직업으로 소개된다. 어머니 이외의 가족 또는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는 모습은 대상 도서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자녀 양육 특히 놀이 상황에서만 간혹 그려지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50% 가까이 그려지고 있으며, 언어폭력·놀리기 등을 포함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남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빈도도 83%에

이르며, 인간 이외의 등장인물의 존재는 중성이나 암수 성별이 골고루 표현된 도서가 93%이다. 그리고 남녀 등장인물이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며 대우하는 예가 45%이고, 남녀 양성간의 불평등 의식은 32%정도 차지한다. 대상도서 중 82%가 자주적이고 비의존적이며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강인함·진취성·용기·동정심·인정 등이 양성성 또는 인간성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도 7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대상도서 중 남녀 유아가 자신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65%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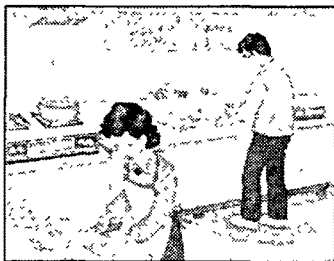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차별적인 성역할 묘사 경향은 우리나라의 아동도서나 유치원, 초, 중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심은경, 1987)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 중에는 성별분업적인 직업관이나 역할, 태도, 행동특성이 아직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의 교과서들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이상적 교재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 삽화나 이야기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 당연히 교과서이므로 사회의 이상적 지향을 전달하고 있으리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막연히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뿐, 자녀들에게 미래에 양성평등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무를 가진 어머니로서 현재 교육 자료에 수록되거나 함의되어 있는 실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해나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어머니를 포함한 각 가정의 부모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생활 중 주로 학습지도와 원만한 친구 관계에 관하여 주된 관심을 보이며, 자녀의 교과서 내용이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삽화나 글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 없이 막연히 국가에서 인정한 검정교과서로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며 양성평등사회에 관한 것도 적절히 제공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6차 교육과정 분석을 살펴보면, 초, 중, 고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의 저자가 여성인 경우는 6.3%(44명, 남성: 657명, 93.7%)에 불과하며,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여성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사진, 삽화를 포함한 교과서 전반에서 여성들의 등장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으며 그 묘사도 주로 가사 일이나 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이어서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 구성 관계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심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 혼성비율은 53.0%로 낮고, 남자만 등장하는 단원이 44.0%에 달하고 있다. 여자 주인공 비율은 초등학교가 23.5%로서, 중학교 39.7%, 고등학교 30.9%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성별에 불만이 높으며 성차별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2002년 2학기과 2003년 1학기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도덕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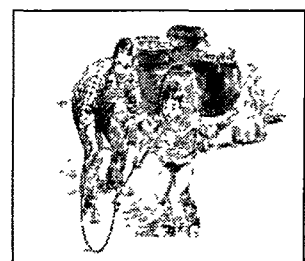
에 그려진 삽화를 살펴볼 때도, 그 추세는 많이 다르지 않다. 교과서 전반에서 여성들의 등장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어머니나 할머니 등 성인여성의 경우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 여성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기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남성은 판사, 건축기사, 태권도 사범, 과학자, 철학자, 시장의 각 점포주인, 어부, 농부, 임금 등 다양하게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예로서 남성미용사(『말·듣, 3-1』, 패션쇼 디렉터 등의 직업도 소개되고 있다. 반면 여성은 교사 이외에는 의사, 조각가(도덕, 6) 또는 음악가(바른생활, 1; 도덕, 6), 버스운전사(말·듣, 3-1), 등산가(말·듣, 3-1) 등, 지극히 한정된 직업에서 일회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도, 남성 의사는 혼자이거나 여성 간호사와 함께 등장하지만, 여성 의사는 혼자(도덕, 6)이거나 남성이 아닌 다른 여성 간호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참여하는 가사활동으로서 자녀 양육의 경우는 놀이(읽기, 6-1)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 주로 나타나며, 정원가꾸기·설거지(쓰기, 1-2; 말·듣, 2-1)·청소(읽기, 6-1) 등 살림과 관련된 가사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양성평등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부분을 검토할 때, 성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남녀 불평등한 사례들이 쉽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설명: 아버지의 설거지 돕기



• 자녀 책 읽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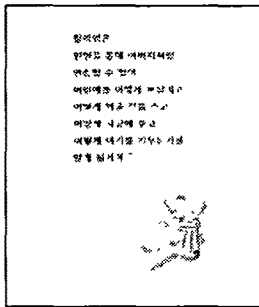
•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

따라서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남성적임'과 '여성적임'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내용 제시 방식을 양성 모두에게 친화적인 형태로 바꾸며, '양성 평등 지수 측정표'를 활용하여 친화적 내용과 여성 친화적 내용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www.kice2.kice.re.kr)

한편 Shirley(1996, 김자연, 재인용)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남녀 아동이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성차별성과 성공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한 인물을 다룬 책을 읽은 후, 직업과 사회활동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 태도가 경감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성 평등 대안동화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Davies(한국여성개발원, 재인용, 1989)의 연구는 성평등 대안동화에 나타난 의도된 부분을 아동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는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올리버의 단추는 여자 것

같이요 <구조대원 리타> <종이웃 공주> <공주와 용>이란 대안동화를 읽어준 후 행위에 나타난 동화 효과의 관찰에서, 여아와 남아는 분명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활동에서, 남아는 대안동화의 양성평등이 의도된 부분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는 반면 여아는 의도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성역할이 아동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취업모의 자녀는 대안동화의 의도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는 가정의 아동은 대안동화의 본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아는 해피 엔딩이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반면, 대부분의 남아는 해피 엔딩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양성평등을 의도하고 씌어진 이러한 동화는 아동에게 크게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지 못한 채 다른 동화의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화는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간의 평등 개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안동화들이 아직까지는 아동의 순수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림설명 : 남아의 인형놀이 (Zolotow, 1972, 윌리엄의 인형)

할머니의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취향 (Bogart, 1994, 할머니의 선물)

5. 맺는 말

이상에서 양성평등사회와 관련하여 가정 내 아동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첨언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아동의 삶은 인간 삶 자체로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거와 의복, 식습관 등 아동의 기호와 환경적 측면은 가정 경제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 즉 남녀 아동의 성별과 관련하여, 가족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정착되었으나 여아 또는 여성에 대한 인식 및 대우 면에서는 아직도 차별과 불평

등이 잔존하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함에 있어서, 가정경제와 사회복지의 개선으로 아동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최선의 질을 추구하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아직도 큰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 때 아동의 가정환경 내에 남녀간의 평등한 인간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www.kgisik.hihome.com ; www.edugender.or.kr).

부모는 아동의 삶의 정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되었듯이, 부모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기타 연구(www2.dig.co.kr/parents)에서도 보고하고 있듯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아들과 딸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미래의 양성평등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딸을 지원하며 헌신하는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에 관한 한 '남성은 사회의 주도자로서 강해야 한다'는 강한 성 고정관념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 G. 용(www.seoulsejong.cschool.net)은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원형의 하나로 아니마(anima:남성속의 여성성)와 아니무스(animus:여성속의 남성성)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남성적인 잠재력과 여성적인 잠재력을 모두 지닌 양성적인 존재로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사람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여성상과 남성상을 상징한다. 용에 따르면, 흔히 여성들은 자신이 억압시켰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다른 남성에게서 보게 되면, 그 남성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함으로써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점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남성들은 사랑하는 여성에게서 자신이 억압해온 자신의 여성성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이 여성이나 남성을 막론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보는 성격과 남성적이라고 보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성성에 기초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딸을 키우는 오늘날의 젊은 아버지(딸사랑아버지모임: www.daughterlove.org)들은 평등한 세상의 자녀 키우는 법을 제안한다. 첫째 제안은 남자다운 장난감, 여자다운 장난감을 사준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총이나 칼은 공격적 성향의 아이로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지양하되, 아들에게 소꿉장난, 딸에게 자동차 장난감 사주기를 머뭇거리지 말자는 뜻이다. 둘째는 동화책을 읽어줄 때, 성 불평등한 내용이나 주제가 확연하게 나타나면 과감하게 읽어주지 말고 '마고할미'같은 새로운 여성캐릭터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셋째는 어려서부터 역할분담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아빠가 모범이 되어 아들에게도 부엌일을 가르치고 집안일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제안이다. 넷째는 내 딸이 아무리 귀해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집안일을 하도록 자립심을 키우자는 것이다. 집안일은 능력 없는 여성이 담당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정 행복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일이며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 또한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제안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는 일은 여성만이 외치고 투쟁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차별적

인식과 대우의 근거인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평등을 인정하고 그를 위한 제반 사업에 앞장을 서야 균형 있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인식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구축하려는 남성의 관점이 아내나 누이, 어머니에서 출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살아야 할 미래의 삶이 차별에 근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박한” 희구는 진실하다 못해 절실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는 것이 옳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평등 사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만이 최선이다.

한편 아동의 생활환경인 가정이 아직도 완전한 평등을 이루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양성평등 실현의 가능성도 그다지 밝은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인간성을 구축하게 되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그 바탕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그림책이나 초등학교 교과서가 그 구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아직도 양성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교육부, 2002-2 ; 2003-1). 그림책이나 교과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남성과 여성의 주도성 측면에서, 또는 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의 구성, 그리고 글과 그림의 전체적인 균형과 세밀한 배치의 측면을 살펴보면, 평등 사회에 대한 막연한 외침 뒤에 감추어진 미세한 남녀 불평등의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그림책과 교과서는 가정교육과 유치원교육 및 학교교육의 중요한 교육 자료이다. 그림책은 아동을 위한 동화를 그림과 함께 제공하는 책으로서 우선적으로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동의 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삽화와 이야기를 수반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성 대안동화가 아동에게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함으로써 동화읽기에서 채택되지 않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단 그림책이나 교과서는 재미있고 흥미로워야 한다. 그림책이나 교과서는 아동의 즐거움과 흥미를 끌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아기는 눈과 귀 등 5 감각을 통해 무엇이든 흡수하는 민감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인식과 축적된 정보는 평생 동안 유지되며, 유아에게 그림책을 통해 전달된 직·간접의 메시지는 대단히 확고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림을 눈으로 보고, 부모나 교사가 읽어주는 글을 귀를 통해 듣고, 소리 내어 따라 읽는 아동은 그림에 표현되거나 글에 내포된 그림책 작가의 ‘강하고 약한’ 내지 ‘주도적이거나 미세한’ 양성평등 또는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미술의 시각적 이미지는 강렬하며, 문학의 함축적 언어는 아동의 세계인식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림책 작가나 교과서 집필진은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잠재적 성 고정관념까지도 재고함으로써 성 차별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책을 선정하고 제공하는 부모와 교사는 책에 드러난 또는 내포된 의미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반성하며 평등한 세계인식으로 확고히 대체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가정, 학교 및 사회 실현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심층 면접 사례의 특성(2003년 3월- 4월)

- 사례1. 59세, 국졸, 2남,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150만원), 자산(6천만원)
사례2. 49세. 고졸. 1남 2녀. 전업주부. 자가거주. 월소득(500만원). 자산(10억원)
사례3. 47세, 대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월소득(400만원), 자산(4억원)
사례4. 44세, 대학원졸, 2녀, 취업,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원)
사례5, 43세, 고졸, 1남 2녀, 자영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300만원), 자산(4억원)
사례6. 42세. 고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1억원)
사례7, 42세, 전문대졸, 1녀,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 5천만원)
사례8. 40세. 대졸, 1남 1녀, 전업주부, 전셋집 거주, 가구 월소득(300만원), 자산(1억원)
사례9. 36세. 대졸. 1남. 취업. 자가 거주. 가계소득(450만원).
사례10. 35세, 대졸. 1남 1녀. 취업, 전셋집 거주.
사례11. 30세. 대졸, 자녀 무, 취업, 전셋집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5천만원)

고미라(1996). 여성학 용어 사전: 양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사회, 7, 127-137.

공인숙, 최연실(1995). 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 역량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87-203.

교육부(2002-2, 2003-1), 초등학교 국어(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바른생활, 도덕.

김미혜(1985). 아동의 공간능력과 성역할 지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6(1), 61-74.

김은경(2000). 아동의 발달과 아버지 역할에 관한 고찰. 혜천대학논문집, 26, 317-332.

김자연(2001). 동화에서 남녀평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6, 355-374.

김태현(2002). 여성주의 이론. 가족학 이론. 교문사.

문영애(1991). 아동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II). 한국의류학회지, 15(2), 115-126.

박혜경, 정대련(2000). 유치원 도서활용 실태분석. 한국아동학회, 21(4), 211-226.

심은경(1988). 아동용 도서에 나타난 성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명희(1987).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성신연구논문집, 25, 209-227.

이방자(2000).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이 그들의 식생활 양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15, 195-208.

임미숙(1992).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는

문.

- 전경란(1997).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6(2), 133-144.
- 정대련, 정연경(2001). 유아용 그림책에 관한 페미니즘적 접근. *한국아동학회지*, 22(2), 329-346.
- 정순화(1992) 성과 관련된 과제의 선호에서의 성도식의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3(2), 65-80.
- 조경원(1999).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학연구*, 29, 3-17.
- 조정란(2000). 유아용 그림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희(2002). 양육문화와 성차. 여성과 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96).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8).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강의. 동녘.
- Bogart, J. E.(1994, 2000). 할머니의 선물. 강인(역). 사계절.
- Zolotow, C.(1972, 1999). 윌리엄의 인형. 이은화(역). 다음세대.
- Alexander, G. M. & Hines, M.(1994). Gender labels and play styles: their relative contribution to children's selection of playmates. *Child Development*, 65(3), 869-879.
- Creany, A. D.(1995). The appearance of gender in award-winning children's book, ED 391 510.
- Fagot, B. I. & Leinbach, M. D.(1989).The young child's gender schema: environmental input, international organization. *Child Development*. 60(3), 663-671.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uston, B.(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s of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359-369.
- Mogharreban, C., Nahikian-Nelms, M.(1996). Autonomy at Mealtime: Building Healthy Food Preferences and Eat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ren Education Journal*, 24(1), 29-32.
- Nadeem, I.(2001). Children's work and schooling: Does Gender Matter? *Evidence from the Peru LSMS panel Data*. Working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ED 459-05.2
- Zeece,P. D.(2001). Meeting children's needs with quality literature: Part 1.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8(3), 175-180.

한겨레신문, 2002. 11. 8.

한겨레신문, 2002. 11. 17.

www.daughterlove.org

www2.dig.co.kr/parents

www.kgisik.hihome.com

www.edugender.or.kr

www.provin.gyeongnam.kr

www.seoulsejong.cschool.net

<http://kice2.kice.re.kr>